

추밀공파 정현공계 오현공 종 중 제52차 정기총회 개최



100세 장수메달 표창받은 방월순 여사, 권용학 회장

추밀공파 정현공계 오현공 종중(회장 권용학) 제52차 정기총회가 3월 1일 11시 시흥시 장현능곡로 178에 위치한 오현공 종중 회관 801호에서 개최되었다. 권정택 정현공 종중 회장과 권용학 사무처장, 권행완 편집국장과 권석행 감사 등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다수의 청소년들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권길행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선조님께 묵념, 내빈 소개, 찬조금 전달, 장수메달 수여, 회장 인사, 축사 순으로, 제2부는 경과보고, 2024년도 결산보고, 2025년 종중 사업 계획, 토론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용학 회장은 권정택 정현공 회장에게 친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서 권용학 회장은 올해 100세가 되는 오현공 종중 자손 권발(1926년생) 여사와 며느리 방월순(1926년생) 여사에게 표창장을 함께 순금 3돈 장수메달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축하했다. 두 가족들은 떡을 마련하여 그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용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이 106주년 3.1절이다. 방금 3.1절 기념행사를 다녀왔다. 시흥에는 5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그중 우리 권희 선조가 계신다. 권희 선조는 20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감옥살이를 1년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권희 선조 등 독립운동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100

세 장수메달을 받으신 권달 여사와 방월순 여사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린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드린다. 안동권씨 성(姓)을 잊지 말고 자부심 갖고 다른 성씨에 욕되지 않게 혼된 말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안동권문을 아끼라고 말했다.

권정택 정현공 회장은 회장 되고 모임에 오늘 처음 참석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오현공 종중과 정현공 종중 사이가 조금 뜨렸다. 조금 복잡한 역사적 사연이 있다. 14세 정현공이 고려 충선왕의 양자로 들어가 왕씨가 되었고 그 아들 왕중위와 사위 왕상좌가 3살 차이이고 다시 16세 때 안동권씨로 복성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 다소 격조했다. 이제는 하나의 정현공 종중으로 나가기로 회장과 협의했다. 그동안 서운한 감정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 오현공 종중에서 추밀공 회관 마련하는데 거금을 현성금으로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또 이렇게 많은 족친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오현공 종중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참석 열의가 대단한 것 같다. 정현공 회장과 오현공 회장이 합심해서 미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먼저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화환을 보내 오

현공 종중 제52차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등 권율부대 방문



권오돈 추밀공파 종중 회장과 권경일 추밀공파 석주공 종중 회장, 권오상 대종회 전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및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3월 14일 제432주년 행주대첩제에 참석한 후 권율부대(보병 60사단) 이명철 사단장의 요청으로 권율부대를 방문했다.

이명철 사단장은 부대 창설부터 현재까지의 부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브리핑을 해 주었다. 그중 2002년부터는 비호부대에서 권율부대로 부대 명칭을 바꿨다고 말했다. 부대명칭이 권율부대로 바뀐 이후 부대원들은 “권율의 기백을 이어받은 최정예 보병사단” “우리는 행주대첩의 위업을 계승하여 서울 사수와 조

국 수호의 선봉이 된다”는 가치 아래 훈련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율부대는 오는 8월 1일이면 창설 50주년이 된다. 그동안 소속과 부대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걸맞는 표지석 등으로 그 정신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부대명칭은 권율부대이고 부대원들은 권율장군의 기백을 닮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권율장군의 정신을 상징할 만한 기념비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동권씨 대종회 측에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규어 제작업체 김영호 대표는 이명철 사단장에게 직접 제작한 권율장군 피규어를 기증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나주 종친회 시조 묘소 참배



나주종친회(회장: 권기일) 회원 40여명은 지난 3월 3일(월) 권상경 종무의 인솔 하에 7시경 나주를 출발하여 눈보라 속에 안동으로 향해 5시간 달려서 12시경 안동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시내 읍식점 북향(墨香)에서 식사를 한 후 서후면 성곡리에 있는 능동재사(陵洞齋舍)에 도착하여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의(權五翼) 국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준비해 온 주과포(酒果脯)로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墓所)와 낭중공(郎中公) 단소(壇所)를 참배하였다. 폭설 속에 능동재사를 둘러보고 태사공 묘소의 유래와 낭중공의 단소 이단(移壇)에 관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평창공(平昌公)과 학림공(鶴林公)의 업적

과 능동재사(국가문화유산 제183호) 관리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시내로 향하는 관광버스 안에서 안동시의 현황과 역사에 대하여 들으면서 북문동에 소재한 태사묘(太師廟)에 도착하여 삼태사(三太師) 묘우(廟宇)에 성배(聖杯)하고 고려 개국 삼공신(三功臣)의 덕업(德業)과 태사묘(太師廟)의 유래를 안내를 받으며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墓所)를 나누었다. 이날 안동엔 올거울을 들어 제일 많은 눈이 내려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해당 지역에 월영교와 안동댐, 하회마을 관광을 포기하고 오후 3시경 일찍이 나주를 향해 발길을 서둘렀다.

권오의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동정

▲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대종회 부회장 및 상임위원)은 3월 11일 예천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1시간 30분 동안 지역 발전과 공직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3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정치 어렵게 할 것인가로 특강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현정회 부회장이다. 광화문에서 고봉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맛집으로 유명하다.

▲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임 원장이 17일 취임했다. 권석윤 신임 생명연 원장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식물학 석사,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부원장, 융합생물소재연구부장, 기술사업화센터장,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이사,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식물학회 부회장 등 한국 바이오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3년이다.

다. 1997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항공 우주공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사조위 항공분과 위원(2021.4~2024.3)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3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6일 까지 3년간이다.

▲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임 원장이 17일 취임했다. 권석윤 신임 생명연 원장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식물학 석사,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부원장, 융합생물소재연구부장, 기술사업화센터장,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이사,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식물학회 부회장 등 한국 바이오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3년이다.

▲ 권석진 총경이 제72대 나주경찰서장에 취임했다. 권석진 서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95년 경찰대 제11기로 졸업한 후 전남청 여성청소년과장, 112상황실장, 강진경찰서장, 전북청 112상황팀장 등 다양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권재득 벽진산업 대표가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1대 이사장에 20일 취임했다. 권신임 이사장은 경북 영덕 이고향이며 현재 자동차용 방진 고무부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 벽진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해고등학교와 경산대학을 졸업하고 경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 권혁민(55) 소방정감이 12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취임했다. 권본부장은 1995년 제8기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 종로·서초·강동소방서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을 두루 거쳤다.

▲ 권호석 총경이 제76대 강원 화천경찰서장에 3월 10일 취임했다. 권호석 서장은 간부후보 51기 경위로 2003년 입직하였으며, 성북경찰서 교통과장, 서울 도봉·강북·노원·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강원청 범죄예방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권호석 서장의 고향은 대전이다.

▲ 권민호 소방장(충북소방본부)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국민주체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민호 소방장은 2023년 12월 청주의 한 눈썰매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20여 명이 매몰된 위급한 상황에서 2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었다. 또한, 2024년 4월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화재를 목격한 권소방장은 즉각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32개 지역 해외 1개(일본)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족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잔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 일시: 2025년 4월 27일 (일) 오전 10시
- ❖ 장소: 영주 시민운동장(영주시 가흥동 산21-1)
- ❖ 주최: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 ❖ 주관: 안동권씨 영주청년회
- ❖ 후원: 안동권씨 대종회, 영주종친회, 장년회, 부녀회
- ❖ 내용: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 ❖ 대상: 전국 33개 지역 청·장년회 및 전국 종친회

〈후원계좌 : 농협 351-1329-3143-43 [예금주: 영주청장년회]
〈광고접수 : kil73@hanmail.net〉
대회장: 권오현 010-3508-6951
준비위원장: 권오국 010-3522-6433
사무국장: 권용일 010-3807-2365
사무차장: 권성환 010-4500-8119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512-1 (안동권씨영주청년회사무실 1층 회관)
문의: 사무국장 010-3807-2365
054-633-2365 FAX: 054-633-2366

2025. 4. 1.

안동권씨 영주청년회